# 전자 영상 매체 시대의 기독교 문화

# Christian Culture in the Age of Electronic Media

송태현

기독교학문연구소 연구원, 한국외대 불어과 강사



## 1. 영상 매체 시대의 도래 : 구술 문화에서 전자 영상 문화까지

오늘날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양식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전통적인 인쇄 매체가 주도권을 상실해 가는 반면에 전자 영상 매체가 점점 위세를 떨치고 있다. 이로 인해 활자 매체에 바탕을 둔 문학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진단도 종종 나왔다. 일찍이 60년대 초에 캐나다의 문명 비평가인 마샬 맥루한(Marchall McLuhan)이 『구텐베르크의 은하계』라는 저서 속에서 활자 매체의 죽음을 선언한 바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요즈음 학계에서는 전자 매체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맥루한 르네상스'가 거론되면서 맥루한을 다시 주목하고 있고, 그의 주장을 심각한 고려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가 함축하는 문화적·인식론적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변화를 어떻게

보아야 하며 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고찰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맥루한이나 그의 후계자들처럼 매체의 변화가 정신구조나 사회구조상의 제반 변화를 수반한다는 주장(이른바 '매체 결정론' 이라고 흔히 명명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을지라도, 매체의 변화가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의 형식과 수단의 변화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분명 '미디어는 메시지다' [1] 라는 맥루한의 주장은 음미할 가치가 있는 말이다. 더욱이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의사소통을 매우 중시한다. 하나님과 인간, 또한 인간과 동료 인간들 간의 교제가 신앙 생활의 기본적인 요소이며, 커뮤니케이션상의 메시지뿐 아니라 그 방법도 사실상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인류 역사에서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개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매체의 진보에 따라 문화사를 대별해 보면 다음의 네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I. 구술(口述) 문화

II. 문자(필사) 문화

III. 활자 문화

IV. 전자 영상 매체 문화

이는 곧 인류 역사에 세 차례에 걸친 커뮤니케이션 혁명이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첫째는 말하기에서 글쓰기로, 둘째는 필사(筆寫)에서 인쇄로, 셋째는 활자에서 전자 매체로 이행한 것이 바로 그 요소들이다. 하나의 매체가 새로이 등장하면 초창기에는 거부되기도 하지만 점차 수용되면서 이전의 매체와 병행하다가 마침내 기존의 매체를 압도해 버린다.

---

1) Marshall McLuhan, 『미디어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1997), 25-46 쪽 참조. 맥루한의 이 표현에 대한 장 보드리아르의 해석에 대해서는 Jean Baudrillard, *La Société de Consommation. Ses Mythes et ses Strucrures* (Paris: Denoël, 1991), 187-191쪽 ("Medium is Message.") 참조.

### 1) 구술에서 문자로

역사에 알려진 최초의 글쓰기는 기원전 35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들이 발전시킨 설형(楔形)문자로써 이루어졌다. 기원전 10세기경에 와서는 표음문자인 페니키아 문자가 발명되었고, 이는 그리스 알파벳과 로마 문자를 비롯해 오늘날 서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자의 기원이 되었다. 플라톤은 구술에서 문자로 이행되던 시기에 구술성과 문자성에 대해 철학적 성찰을 행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의 대화록 『파이드로스』를 보면 플라톤은 말을 가치 있게 여겼고 문자는 부정적으로 간주했음을 알 수 있다.[2] 기억을 보충해 준다는 구실 아래 문자는 결국 망각을 조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작중 인물인 소크라테스는 진리와 문자를 명확히 구분했으며, 문필가를 진리에 대한 헌신이 없는 사람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는 파이드로스가 가져온 기록된 텍스트를 치료제이자 독이며 축복이자 저주인 '파르마콘(pharmakon)' 에 비유했다.

비록 플라톤이 의식적으로는 문자에 대해 부정적이었을지라도, 아이러니컬하게 그 자신은 글쓰기로써 20여 편에 달하는 방대한 『대화록』을 남긴 철학자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국가』에서 구술 시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음유) 시인을 그의 이상국가에서 추방했다. 이는 에릭 해블록(Eric A. Havelock)[3]과 월터 옹(Walter J. Ong)[4]이 지적하는 대로 무의식의 차원에서나마 플라톤은 기존의 구술 문화와 깊은 대립관계를 유지했고, 쓰기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인식의 세계에 자신이 속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해블록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더 이상 호메로스와 같은 음유 시인들



---

2) Platon, *Le Banquet, Phèdre* (Paris: Garnier, 1964) 참조. 플라톤의 '파르마콘' 에 대해서는 김형효, 『데리다의 해체 철학』 (서울: 민음사, 1996), 제3장 "로고스와 〈파르마콘〉"(89-121쪽)도 참조할 것.

3) Eric A. Havelock, *Preface to Plato*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1963). Walter J. Ong,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서울: 문예출판사, 1995), 41-48쪽 참조.

4) cf. Walter J. Ong,앞의 책 cit., 42쪽 이하 참조.

의 이야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인 알파벳을 익히고 이를 내면화함으로써 추상적이고 분석적인 사유를 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철학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한다. 월터 옹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으로 대표되는 희랍의 형식논리가 발전한 것도 알파벳이 내면화되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5] 또한 월터 옹에 의하면, 쓰기는 인간의 내면 세계로 눈을 돌리게 함으로써 불교, 유대교, 이슬람교 같은 위대한 종교들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들 종교들의 경전을 형성시켰다.[6]

문자가 발명되고 글쓰기가 내면화되면서 철학과 소위 '고등종교' 들이 발전하고 인간의 사유 체계가 크게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지만, 필사 시대에 문자의 혜택을(혹은 저주를) 누린 사람은 귀족이나 성직자와 같은 엘리트층에 국한되었다. 게다가 필사라는 테크놀로지는 제작과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중산층과 대중이 문자와 서적의 혜택을 누리고, 이로써 구술 문화를 벗어나 본격적인 문자 문화가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활자 인쇄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명을 기다려야 했다.



### 2) 필사에서 활판 인쇄로

필사본과 활판 인쇄 사이에는 목판 인쇄가 존재한다. 하지만 목판 인쇄는 기술적인 제약이 많아 서적의 보급과 문자 교육의 확대에 획기적인 기여는 하지 못했다. 서양에서 이 역할들을 담당하게 될 활자 인쇄는 15세기 중엽에 독일의 구텐베르크에 의해 발명되었다. 그는 1455년경에 『구텐베르크 성서』라 불리는 '42행 성

---

5) 같은 책 84쪽 참조.
6) 같은 책 162쪽 참조.

서' 를 출간했는데 이는 서양 최초의 금속활자본이다. 물론 금속활자는 서양에 앞서 극동 지역에서 먼저 발명되었다. 『구텐베르크 성서』 보다 200년 전에 이미 한국에서 (고려 고종 21년: 서기 1234년) 『고금상정예문(古今詳定禮文)』이 금속활자로 인쇄되었다는 기록이 이규보(1168-1241)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 전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그 인쇄본은 보존되어 있지 않다.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금속활자 인쇄본은 고려 우왕 3년(1377년)에 청주의 흥덕사(興德寺)에서 찍어낸 『직지심경(直指心經)』으로서 이것은 현재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인쇄 혁명이 한국과, 나아가서 동아시아와 세계에 어떠한 정신구조와 사회구조상의 변혁을 초래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이 서양과 세계에 가져온 엄청난 변혁과는 비교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금속활자의 발명을 우리 나라와 동아시아 문명의 비약적인 발전과 근대 시민 사회 형성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사실은 단지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진보만으로 사상이나 종교 그리고 사회 제반의 변혁을 이루어낼 수 없음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 이는 매체결정론에 경종을 울려 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구텐베르크가 이룩한 인쇄술 혁명이 세계문명사에서 큰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그것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르네상스에서 시작된 예술과 학문 그리고 사회적인 변혁의 물결을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종교개혁으로까지 이어 주었기에 '구텐베르크의 은하계' 가 인류 역사의 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다.

가톨릭 교회는 초기에 인쇄혁명을 두려워하여 책을 금하고 불태우는 등 활자 문화를 억압한 반면, 개신교는 커뮤니케이션의 기술혁신에 발맞추어 신앙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전달해 왔다. 교

리서를 비롯한 서적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신앙 교육 방법에 전환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1517년과 1520년 사이에 마르틴 루터의 책들과 소책자들이 3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한다.[7] 1529년에는 루터의 『작은 교리서 Kleiner Katechismus』가 출간되었는데, 이 책은 그 후 40년 동안 백만 부가 인쇄되었다.[8] 한편 1554년 출간된 카니시우스의 교리서는 그가 죽은 해인 1597년 233쇄가 출판되었다고 한다.[9] 무엇보다도 인쇄혁명은 성경의 보급을 확대시켰다. 더 이상 라틴어 성경 『불가타(Vulgata)』만을 유일한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국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민중들이 직접 읽을 수 있기를 열망한 종교개혁자들의 시도를 인쇄술의 발전은 현실화시켜 주었다. '만인 제사장' 사상의 확산에 활자 인쇄가 날개를 달아 준 셈이었다. "인쇄술은 하나님이 내리신 최고의 은총이며, 그로부터 복음사업이 추진된다."[10]는 루터의 말은 종교개혁과 인쇄 매체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잘 대변해 준다.



### 3) 활자에서 전자 매체로

구텐베르크의 인쇄 혁명이 있은지 약 400년이 지나 새로운 매체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프랑스의 니엡스(Niepce, 1826)와 다게르(Daguerre, 1839)에 의해 사진이 발명되고, 이어서 미국의 모스(Morce, 1844)가 전신을 발명하기 시작하면서 19세기 중반부터 전화·축음기·(무성) 영화 등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20세기에 이르면 라디오·텔레비전·컴퓨터·인공위성 등 커뮤니케이

---

7) William F. Fore, 『매스미디어 시대의 복음과 문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67쪽 참조.
8) Pierre Babin, 『종교 커뮤니케이션의 새 시대』 (칠곡: 분도출판사, 1993), 48쪽 참조.
9) 같은 책 같은 쪽 참조.
10) Neil Postman, 『죽도록 즐기기』 (서울: 참미디어, 1997), 50쪽에서 재인용.

션 매체의 눈부신 진보가 이루어진다. 오늘날에는 통신과 컴퓨터가 결합된 형태인 멀티미디어 혹은 뉴 미디어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11]

구텐베르크 이후 새로운 미디어의 발전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합한 양태로 전개되고 있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일은 무모해 보인다. 하지만 이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매체는 전자 영상 매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문자를 중시하는 이전의 인쇄 매체와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는 점에서도 그러하고, 또한 이른바 '신세대'라 불리는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매체라는 점을 고려해도 그러하다. 과연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텔레비전과 PC통신 혹은 인터넷이 전달하는 전자 영상에 현저히 노출되어 있어, 이 매체들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mentality)이 그로 인해 새로이 형성되어 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구텐베르크 시대의 주된 매체는 서적이었고 문필가들이 이 시대의 문화를 대표하는 존재였다면, 이제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문필가는 더 이상 이 시대의 문화를 주도하는 존재가 아니며, 오히려 대부분의 전업 '순수 문학' 작가들은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사람들은 책 앞에서보다 텔레비전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청소년들은 부모나 교사에게서보다 텔레비전·비디오·PC통신·인터넷이 제공하는 전자 영상을 통해 더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가장 즐기는 취미 생활도 독서가 아니라 전자 오락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오늘날 전자 영상 매체와 무관하게 지낼 수 있는 현대인이란



11) Colin Mercer, "세계적인 창조적 인프라를 향해: 디지털 시대에서 문화, 민간 네트워과 기관의 새로운 역할", 『유네스코 포럼』 5호, 1998년 여름, 43쪽 : "멀티미디어는 뉴 미디어가 텍스트와 정/동영상을 통합하는 능력을 뜻하는데, 뉴 미디어는 이러한 능력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 통합 작동되는 TV, 전화, 컴퓨터와 같은 – 커뮤니케이션 형태이다."

존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사정은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활자 매체 중심의 전통적인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 문화가 더 이상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이 가지는 관심의 초점은 점점 영상 매체 쪽으로 향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쇄 매체가 더 이상 현대인과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하지 않는 매체라고 판단하여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 문화에서 심지어는 예배에서도 전자 영상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영상 매체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사실을 현대인의 심각한 오류라고 판단하여 전자 영상 매체를 정죄하고 인쇄 매체만을 고집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특히 개신교 교인으로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주제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폈듯이 개신 교회는 인쇄 매체와 더불어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인쇄술을 과감히 수용하여 성경을 보급하고 교리서를 만들어 교육하는 등 인쇄 매체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온 개신 교회는 인쇄 매체가 그 지배권을 전자 영상 매체로 옮기고 있는 이 시점, 큰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문제들에 직접 접근하기에 앞서 우리는 인쇄 매체에서 전자 영상 매체로, 비유적으로 말해 구텐베르크에서 맥루한으로 이행하는 것이 문화사적으로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 연후에 이러한 문제 의식 속에서 새로운 기독교 문화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먼저 이 이행의 의의를 문화사적인 맥락 속에서 고찰해 보자.

## 2. 전자 영상 매체 시대의 문화사적 의의

### 1) 이미지의 복권

프랑스의 철학자요 문화 인류학자인 질베르 뒤랑(Gilbert Durand)이 역설하듯이, 서구 사상은 존재론적으로 이미지(image)를, 심리학적으로는 상상력의 기능을 평가 절하해 온 일관된 전통을 유지해 왔다.[12] 이미지는 학문의 세계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변방을 배회하는 수모를 당해 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질베르 뒤랑은 주요한 두 가지 원인(遠因)으로서 기독교의 유일신(唯一神) 사상과, 소크라테스주의적인 진리 방법을 지적한다.[13] 이들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구약성경(출애굽기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 중 제2계명의 내용은 이러하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구절은 신(神)으로 섬기기 위해 우상을 제작하는 것을 금하는 말씀이다. 하지만 그 본의(本意)를 넘어서서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종종 확대 해석되어 왔다. 즉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통해 성경이 모든 이미지의 제작을 금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미지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해석해 온 것이다.

이 기독교적인 우상파괴주의(iconoclasme)에다 서구에서는 '참이냐 거짓이냐' 만을 따지는 이원적 논리에 기초한 진리 방법이



12) Gilbert Durand, *Les Structures anthropologiques de l' Imaginaire* (Paris: Bordas, 1969), 15쪽 참조.
13) Gilbert Durand, *L' Imaginaire. Essai sur les Sciences et la Philosophie de l' Image* (Paris: Hatier, 1994), 5-10쪽 참조.

결부된다. 참과 거짓으로 판단될 수 있는 명제만이 진리의 자격을 획득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진리의 논의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참과 거짓의 형식적 추론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이미지는 애당초 진리의 영역 바깥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확립된 이 진리 방법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이성주의를 적극 수용한 토마스 아퀴나스로 대표되는 중세 스콜라 학파에 의해 이어졌다. 이성만이 진리에 접근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은 대륙의 합리주의와, 경험적 사실만을 중시하는 영국의 경험주의, 그리고 19세기에 와서 발전한 실증주의, 과학주의, 역사주의는 모두가 그 진리 방법의 계승자들이다. 이들이 정통의 지위를 굳혀 온 서양의 사상계에서 이미지가 차지할 수 있는 지위란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이미지를 경시하고 경험적 사실과 이성적 관념을 중시해 온 서구에서는 과학과 기술이 타문명권에 비해 비대하게 발전하였고, 발전된 그 테크놀로지는 사진,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등을 낳았으며, 그 결과 서구는 역설적으로 '이미지의 문명'을 이룩하게 되었다. 물론 아직도 인식의 역할에서 이미지를 본질적으로 불신하는 태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적잖은 학자들이 이미지에 대해 미심쩍은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미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든 부정적으로 평가하든 간에 우리 시대에 이미지는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주된 요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점이다. '이미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14] 교육은 이제 생략할 수 없는 커리큘럼이 되었다.



---

14) Christiane Cadet et als, *La Communication par l' Image* (Paris: Nathan, 1990) 참조.

15) 언어는 일반적으로 좌뇌가 관장하지만 어떤 언어 활동은 우뇌와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구어(口語)의 리듬이나 높낮이(modulation)라든가, 문장에 담겨있는 아이러니와 유머를 파악하는 데

### 2) 이성의 우위에서 감성의 우위로

인쇄 매체 시대에는 구문(構文)과 이성적인 추론(推論)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면, 전자 영상 매체 시대에는 상상력과 감성 그리고 심미안이 더 중요한 요소로 부상된다. 사실 인간에게 양자는 모두 필요하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문자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을 '이성적 동물' 로서 지나치게 강조해 왔다. 이성주의의 정점(頂點) 혹은 '포화상태(saturation)' 에서 그 동안 백안시해 온 측면들로 쏠리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의 의미는 70년대 이래로 발전되어 온 신경생리학의 성과와 관련해서 고찰해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잘 알려진 대로 미국의 로저 스페리(Roger W. Sperry)는 인간의 뇌를 연구함으로써 인간에게 이분화(二分化)된 의식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그는 뇌의 좌반구는 오른쪽 눈과 귀 그리고 오른쪽 손과 발에 연결되고, 반면에 뇌의 우반구는 왼쪽 기관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과 아울러 양쪽 뇌의 역할을 밝혀 내었다. 좌뇌가 이성·논리·언어·지성·분석·개념·추상의 영역을 담당한다면, 우뇌는 감성·직관·시각·음악·본능·즉각적 측면을 제어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뇌의 내부세계를 통찰한 공로로" 로저 스페리는 1981년 노벨 의학 및 생리학 상을 수상하였다.

물론 인간의 대뇌를 확연하게 구획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15], 그 구분은 오늘날 대체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글을

---

는 우뇌의 활동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연구자들에 의하면, 여성의 경우 언어 활동에서 우뇌가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의 경우보다 더 크다. 실어증(失語症)을 겪는 환자들 중에 여성이 남성보다 더 빨리 회복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언어 활동에서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보다는 우뇌를 더욱 많이 사용한다. 음악을 듣는 데도 일반인들이 우뇌를 주로 사용(멜로디에 대해 전체적으로 지각함)하는 데 반해, 음악인들은 멜로디의 요소들을 분석하고 멜로디를 음표로 옮겨보는 활동을 하는 등 좌뇌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 관해서는 Gaëtane Chapelle, "Cerveau droit, Cerveau gauche", Sciences humaines n° 97, août-septembre 1999, 51-52쪽을 참조할 것.

많이 쓰고 읽는 사람은 좌뇌가 우세하게 발달하는 반면, 영상 매체를 많이 접하는 사람은 우뇌가 우세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의 세대 갈등의 핵심에는 구텐베르크적 인간과 맥루한적 인간 사이의 갈등이 놓여 있다. 인쇄 매체를 위주로 교육을 받은 구세대가 이성을 중시한다면, 영상 매체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신세대는 감성을 더 중시한다. 로고스(logos)에서 파토스(pathos)로, 니체 식으로 말하자면 아폴론에서 디오니소스로 진행되는 이행은 우리가 간파하고 대처해야 할 이 '시대의 표적' 임에 틀림없다.

## 3. 교회사와 이미지 문화

이제 영상 매체 시대의 교회사적 맥락과 의의를 소묘해 보기로 하자. 사실 이미지는 두 차례에 걸친 교회 분리 -- 8세기 동서 교회의 분리, 16세기 종교개혁 -- 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만큼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다.



### 1) 성상 논쟁과 교회의 분리

원래 교회는 하나였다. 11세기에 와서(1054년) 동방의 그리스 정교와 서방의 로마 가톨릭으로 결정적으로 분리되었는데, 이는 8세기 이래로 불거진 '성상숭배(聖像崇拜)' 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종교에서 회화와 조각의 이미지를 철저히 배척한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비잔틴의 황제 레오 3세는 성상숭배를 강력히 반대하였고, 725년 예배에서 성상 사용을 금지하는 등 성상제거 칙령을 공포하였다. 그 결과 수도승과 평민들이 종교 반란을 일으켰으나 황제는 군대를 동원해 그의 칙령을 시행하였다. 당시 칙령에 반대했

던 콘스탄티노플 주교는 사형되기까지 했다. 로마 교황 그레고리 2세도 그 칙령에 반발했고, 그는 오히려 성상 반대자를 파문하였다. 이로써 동서교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레오의 칙령을 반대한 당대의 성직자들은 -- 다마스커스의 요한은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성상숭배의 신학적 근거를 제시한 신학자다 --성상이 신적 권위의 매개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의 계시라는 사실, 즉 성육신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반발 속에서 754년 열린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형상에도 예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게 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상타파 결정은 후일 번복을 거듭하였다.[16] 787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레네 여황(女皇)은 성상이 예배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경의는 그 표현되는 주체에 돌아간다고 함으로써 성상을 인정했다. 그 후 832년에 또 다시 성상의 금지가 공포되었고, 843년에 열린 공의회에서는 성상을 인정한 니케아의 결정을 부활시켰다. 이와 같은 소용돌이를 겪은 후 동방 정교는 결국 성상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성상애호자들과 성상파괴자들 간의 투쟁은 16세기 종교개혁 때에 재현되었다.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정교에서는 그림과 조각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시화(可視化)함으로써 신자들이 기도와 예배를 드릴 때에 도움을 받도록 하였다.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시대에 이미지는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중요한 전달 수단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지는 쉽게 '부적(talisman)' 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물품(objet miraculeux)' 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었다. 성화와 성상이 미신과 우상숭배로 결부된 위

16) 성상타파 논쟁에 대해서는 Gerardus van der Leeuw, 『종교와 예술』 (서울: 열화당, 1988), 66-81쪽을 참조할 것.

험을 보았던 즈빙글리(Zwingli)나 장 칼뱅(Jean Calvin) 등 개혁자들은 교회 내에서 화상(畵像)의 사용을 금하였다. 이들의 영향을 받은 신자들은 이들보다 철저한 성상파괴주의자가 되어 개신교는 흔히 성상파괴주의로 알려지게 되었다.

사실상 칼뱅[17]이나 즈빙글리가 이미지와 조형예술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단지 정당하지 않은 사용, 다시 말해 우상숭배라든지 하나님을 재현하고자 하는 시도라든지 이미지를 경배하는 일 등을 비판한 것이지 '그림과 조각에 대한 정당하고 순수한 사용' 은 인정하였다. 그렇긴 하지만 이미지의 남용을 바로잡고자 하는 개혁자들의 노력이 결과적으로 신앙 생활에서 시각적인 이미지의 역할을 약화시켰음은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개혁자들은 시각보다는 청각을 중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예배에서 이미지적인 성격을 지닌 세례와 성찬보다 설교(말씀 선포)를 강조하였으며, 기독교 예술에서도 종교음악과 찬송시를 발전시킨 반면 조형예술은 경시하였던 것이다. 기독교가 예술을 외면하면 예술은 세속화되기 마련이고 결국은 반(反)기독교화 되기에 이른다.[18] 실제로 서양의 근대 미술은 이러한 길을 밟아 왔다.



개혁자들이 본래 의도한 바 이상으로 개신 교회는 이미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왔고 이미지 문화를 경시해 왔다. 프랑스의 개신교도이며 사회학자인 자크 엘륄(Jacques Ellul)의 다음과 같은 말[19]은 '언어 숭배' 와 '이미지 경멸' 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화하면 마술, 미신, 우상숭배, 이교주의 그리고 다신교가 찾아올 뿐이다." 우리 나라의 개신 교회도 이미지를 불신하는 서구 교회사의 맥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음악 대학

---

17) 칼뱅의 성상 및 조형예술관에 대해서는 Jean Calvin, *L'Institution chréienne I et II* (Aix-en-Provence: Editions Ké rygma, 1978), ch. XI, XII를 참조할 것.

18) Hans R. Rookmaaker, 『현대 예술과 문화의 죽음』 (서울: IVP, 1993), 38쪽 참조.

19) Quentin J. Schultze, 『거듭난 텔레비전』 (서울: IVP, 1996), 130쪽에서 재인용.

과 합창단 혹은 관현악단에서 기독교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또한 기독교 음악도 매우 발전해 있는 반면에, 미술에 종사하는 기독교인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기독교 미술도 음악에 비하면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십자가 상징조차도 우상의 혐의를 씌워 교회당 강단 뒤에서 철거하게 한 적이 있는 한국 개신 교회의 분위기도 서구 개신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미술과 영상예술이 발전하기에는 불리한 토양이 아닐 수 없다.

### 2) 성경은 과연 이미지를 금지하는가?

앞에서 언급한 십계명의 제2계명은 과연 기독교 미술, 나아가서 기독교 영상 예술을 정죄하는 말씀인가? 사실 이 계명을 조형예술을 금하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일부의 전통으로 인해 개신교는 영상 교육과 시각 미술을 등한시해 왔다. 그런데 이는 과연 타당한 해석인가? 성경은 항상 전체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다시 말해 '성경은 성경으로써 해석해야(Interpret Scripture by Scripture)'[20] 하는 것이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구절을 해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만일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이 이미지 제작을 금지한다면, 출애굽기 20장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21]가 『예술과 성경』에서 지적하듯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동시에 조형예술의 형식으로 성막(聖幕)을 꾸미도록 명령하셨으며, 또한 성신(聖



20) T. Norton Sterrett, *How to understand your Bible* (Downers Grove: IVP, 1974), 85쪽.

21) 이에 대한 프란시스 쉐퍼의 설명에 대해서는 Francis A. Schaeffer, 『예술과 성경』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11-18쪽을 참조할 것. 비이스도 쉐퍼의 설명을 발전시키고 있다. Gene Edward Veith, 『예술에 대해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 (서울: 나침반, 1993), 33-38쪽 참조.

神)이 다윗에게 가르치신 식양(式樣)대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역시 예술작품으로 가득 채워야 했다. 쉐퍼의 설명을 따라 먼저 성막의 경우를 살펴보자.

출애굽기 2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지성소의 속죄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다.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로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18, 20절). 즉 날개 달린 천상의 피조물인 그룹들(cherubim)의 조상(彫像)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다. 이어서 하나님은 꽃 모양으로 장식된 등대(lampstand)를 만들도록 명령하신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여섯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세 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가지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같게 할지며"(31-33절). 또한 28장에서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입을 거룩한 옷에 석류로 수를 놓도록 명령하신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33절).



역대하 3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솔로몬 성전의 벽에는 그룹들이 아로새겨져(carve)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두 그룹의 형상이 새겨져(sculpture) 있다. 그리고 성전 앞의 두 기둥머리에는 석류 일백 개를 만들어 사슬을 달게 하였다. 이어서 4장에서는 부어 만든 바다(the Sea of cast metal)가 묘사되어 있고, 바다의 가장자리 아래에는 소(bulls) 형상들이 받치고 있다. 또한 제사장들이 씻기 위해 만든 그 바다의 가(rim)는 백합화의 식양으로 만들었다.

만일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조각을 금하셨다면, 당신이 금하신 내용을 당신의 종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셨다고 볼 수 있을

까? 성막과 성전에 천상의 피조물(그룹)과 동식물(살구꽃, 백합화, 소), 그리고 바다의 형상을 만들라고 하신 말씀을 비추어볼 때 십계명의 제2계명은 조형예술 자체를 금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한 피조물을 만들어 신으로 섬기는 것을 금하신 내용임에 분명하다. 실제로 당시 이방 민족들은 그러한 피조물들의 형상을 제작해서 그들의 신으로 삼고 경배를 드렸던 것이다.

이미지의 제작은 허용하되 그에 대한 경배는 금하는 좋은 예가 바로 놋뱀이다.[22]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들에게 물려 많이 죽게 되자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민 21:8)고 명령하셨다. 이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고, 뱀에게 물린 자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고 살았다. 예수는 이 놋뱀을 당신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로 사용하기까지 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요 3:14-15)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우상화하여 섬겼을 때, 구체적으로 말해서 놋뱀을 향해 분향했을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히스기야는 그것을 부수어 버렸다(왕하 18:4).



## 4. 영상 매체 시대의 기독교 문화를 위해

우리는 이제까지 영상 매체 시대의 도래와, 그 문화사적인 그리고 교회사적인 의의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이미지의 권리 회복과 함께 현대는 이미지의 문화를 이룩하게 되었고, 이제 영상 매체는 우리 시대를 주도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 시대에 당

---

22) Francis A. Schaeffer, 『예술과 성경』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20-21쪽 참조. ; Gene Edward Veith, 『예술에 대해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 (서울: 나침반, 1993), 36쪽 참조.

시 새로이 시작되었던 매체(인쇄 매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새 시대를 창출해 간 개신 교회는 이번에도 새로운 매체(영상 매체)에 문을 활짝 열어야 하는가? 이제 개신교는 활자 매체 중심의 교육과 문화에서 영상 매체 중심으로 옮겨가야 할 것인가?

### 1) 활자 매체는 폐기되어야 하는가?

우선 맥루한이 선언한 활자 매체 종언은 과연 타당한 주장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만일 인쇄 매체가 진정으로 종언을 고하게 된다면 활자 매체에 연연해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태는 맥루한의 예견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월터 옹이 지적하듯이 새로운 전자 매체는 오히려 활자 문화를 더욱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월터 옹은 이렇게 말한다. "전자적 장치들에 의해서 인쇄본이 조만간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점점 더 많은 인쇄물이 생산되고 있다. 전자를 이용하여 테이프 녹음된 인터뷰는 무수한 '대화' 본이나 '대화' 기사를 만들어 낸다. 그러한 책이나 기사는 테이프 녹음이 가능하기 전까지는 결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23] 즉 "새 미디어가 옛 미디어를 보완" 해 주기도 하는 것이다.



하나의 새로운 매체가 탄생한다고 해서 이전의 매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문자가 발명되었다고 해서 말하기(구술)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말하기(speech)가 현대 문화에서도 필요한 요소임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영상 매체 시대가 도래한다고 해서 인쇄 문화가 사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복잡한 추론과 논리, 그리고 깊이 있는 사색이 요구되는 토론을 위해서는 활자 매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영상 매체는 만능이 아니다.

---

23) Walter J. Ong, 앞의 책 205쪽 참조.

문학에서 사용되는 모든 수사법 역시 영상 매체로 온전히 환원되지는 않는다.[24]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성경 그 자체와 관련된 것이다. 개개인의 신자가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며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매우 중시하는 개신교로서는 문자 매체가 아닌 영상 매체가 주된 매체가 된다는 것은 분명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절대적인 진리인 성경 말씀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고, 또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문제는 이 말씀이 시각적인 이미지로 환원될 수 없다는 데 있다. 말씀을 시각화하는 것은 구어를 문자화하는 것과는 다르다. 말씀은 이미지와 완전히 일치할 수가 없다.

### 2) 전자 영상 매체의 독소(毒素)

각각의 매체는 모두 야누스적인 성격을 지닌다. 일찍이 소크라테스는 씌어진 텍스트를 치료제이자 독약인 파르마콘이라고 불렀다지만, 사실은 모든 매체가 이와 같이 상호 모순적인 속성들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인쇄술을 하나님이 내리신 은총이라고 찬양했던 루터는 "인쇄술의 파급이 피상적인 독서를 부추겨 성경의 진실과는 반대로 돌아서지 않을까 염려했다".[25] 이미지가 복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우리 사회가 온통 이미지 일색의 문화로 치닫는 것은 분명 위험하다. 오늘날 고삐 풀린 이미지의 질주는 우리를 두렵게 한다. 과도하게 많은 이미지는 이미지 억압만큼이나 이미지 파괴적이다. 레지스 드브레(Régis Debray)가 염려했듯이 이미지 문화에도 그레샴의 법칙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나쁜 이미지

24) 이 점에 대해서는 도정일, "영상시대의 문학의 힘과 가능성", 『현대문학』 1998년 1월호를 참조.
25) Régis Debray, 『이미지의 삶과 죽음』 (서울: 시각과 언어, 1992), 391쪽 참조.

가 좋은 이미지를 구축(驅逐)하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에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전자 영상 매체는 심각한 '독약'이 될 수 있다. 그 위험 요소들 중 세 가지만 지적해 보자.

첫째, 전자 영상은 인간을 수동적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 전자 영상은 움직이는 영상(動映像, moving image)으로서 우리가 미처 깊이 생각해 보기도 전에 화면을 옮겨 버린다.[26] 우리가 능동적으로 화면을 다스리기보다 우리의 시선은 화면에 의해 이끌려 다니기 쉽다. 또한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우리가 문학 이미지를 통해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을, 전자 영상으로 감상할 경우 일정하게 고정되어 우리에게 전달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발전되는 것을 막는다.

둘째, 전자 영상은 단순한 조형예술상의 문제를 넘어 그 제작과 유포의 메커니즘에 권력과 자본이 깊이 침투해 있다. 배후에서 이미지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익명의 권력가와 자본가의 음모에 무기력하게 당하기 쉽다. 예를 들어, 미국의 NBC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소유이며, CBS는 웨스팅하우스의 소유이며, ABC는 디즈니의 소유이다.[27] 민영 방송이 어찌 그 소유주와 광고주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우리 나라 공영방송의 경우 사실상 공영성이 국영성과 혼동되리만큼 국가권력기관의 영향을 지나치게 받고 있다. 유대인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세계의 유수 통신사들이 이스라엘에 유리하게 그리고 아랍인들에 불리하게 보도하는 것도 매체의 속성상 자연스런 일이다.

셋째로 들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영상 매체가 제공하는 과도



---

26) 물론 영상 매체 자체가 그러하다는 말은 아니며, 모든 동영상이 그러하다는 말도 아니다. 예를 들어 타르코프스키나 쿠로자와 감독의 영화에 나타나는 느릿느릿한 상징적 이미지들은 관객들에게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27 Pierre Bourdieu, *Sur la Télévision* (Paris: Liber, 1996), 14쪽 참조.

한 정보인데, 많은 경우 그것은 그리 중요한 내용이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매우 자극적이기에 우리의 뇌리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몰아내는 점이다. 사실 오늘날 영상 매체가 그리스도인에게 미치는 역기능은 심각하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성경이나 기독교 서적을 어느 정도 읽고 설교를 몇 편 듣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우리의 심성 속에 스며들어 뿌리를 내리기는 너무나 힘들다.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영상 매체가 제공하는 수많은 광고 이미지, 뉴스 이미지, 연속극의 이미지 혹은 시디롬(CD-Rom) 이미지가 우리의 머리를 채우고 지배하기 때문이다.

### 3) 바람직한 영상 문화 형성을 위하여

영상 매체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일 것이다. 이 매체를 선용하여 우리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가 혹은 악용하여 이 사회를 타락시키는가는 우리에게 맡기어져 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이 매체가 그 독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문화를 선도(先導)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날이 갈수록 일반 서적이나 잡지에서도 화보와 삽화가 더 많이 실리는 추세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음악도 단지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뮤직 비디오를 점점 더 요구하고 있다. 상품에서도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 모두가 영상 시대의 특성들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도도한 시대의 흐름 앞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두 가지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우선 우리는 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젊은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미지와 이미지의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미지의 문화에 적극 참여할 때 그리스도인 전문가들을 많이 배출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들

과 함께 교회는 아름다운 영상 문화를 일구어 나가야 한다. 영상 문화를 활용하여 젊은이들에게 쉽게 접근하여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제자도를 가르쳐야 한다. 또한 젊은이들이 유익하게 즐길 수 있는 기독교 영상 문화도 만들어야 한다. 영상 매체 시대에 무수한 이미지 문화가 범람해도 정작 유익한 문화는 찾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문화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가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여 제시하지 않으면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고 우리 역시 비기독교적인 문화를 통해 세속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영상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기독교 교육과 문화를 형성하는 동시에 우리는 오늘날 과도하게 범람하는 이미지 문화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해야 한다. 사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영상 문화에 대해 차분한 성찰을 해 보기도 전에 전자 영상 매체는 급속도로 팽창해 있다. 이러한 급속한 팽창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이미지 문화를 전자 영상 매체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전자 영상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회화, 조각, 무용, 연극 등의 이미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장 비구상적이며 덜 직접적이기에 상상력을 많이 자극해 주는 문학 이미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영상 매체 시대에 취약해지기 마련인 좌뇌의 활동들(글, 논리, 지성, 분석력 등)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전자 매체 시대에 갈급한 것은 내면성에 대한 성찰, 그리고 자연과의 만남이다. 밤하늘의 달과 별을 바라보며 인생과 우주와 조물주를 생각하는 대신 우리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니 말이다.